

예술가는 전달이다



신경림

시인

시인 신경림은 1935년 충북 충주에서 태어나, 동국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했다. 1956년 <문학예술>에 <갈대> 등이 추천되며 등단했다. 건강상의 이유로 낙향하여 초등학교 교사, 농사꾼, 공사판 노동자, 광산 노동자 등을 전전하며 10년간 절필했다. 상경하여 다시 작품 활동을 재개했고, '민중시의 물꼬를 텃다'고 평가받는 첫 시집 <농무>를 발표했다. 1975년 고은, 백낙청, 염무웅 등과 자유실천문인협의회를 창립하고, 1984년 미국, 일본 문화에 대항한 건강한 우리 문화를 위해 민요연구회를 만드는 등 1970년대 이후 문단의 민주화 운동, 반독재 운동에 부단히 참여했다. 현재 더불어숲 학교 교장, 동국대 석좌 교수직을 맡고 있다. 저서로 <농무>, <새재>, <낙타> 등의 시집, <민요기행>, <신경림의 시인을 찾아서> 등의 산문집이 있다. 만해문학상, 한국문학작가상, 이산문학상, 대산문학상, 공초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여운
화가

화가 여운은 1947년에 태어나 홍익대학교와 동대학원 서양화과를 졸업했다. 이리 남성 고등학교 미술교사, 한양대 강사를 거쳐, 현재 한양여자대학교 조형일러스트레이션과 교수로 있다. 1970년 〈한국일보〉 주최 제1회 한국미술대상전 공모부문에서 우수상을 받는 등 전위적인 신문 골라주 작업으로 화단에 알려졌고, 1980년대 이후 민중미술 작품들을 선보이며 대표적인 민중미술 화가로 손꼽히고 있다. 1985년 형식주의 미술을 떠나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주재환, 오윤, 신학철 등과 민족미술인협회 창립했고, 2004년부터 2007년 초까지 회장직을 맡은 바 있다. 또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환경운동연합에서 활동하는 등 사회적 실천 활동에 활발히 참여해왔다. 〈검은 소묘〉 등 4회의 개인전을 열었고, 〈남북 615공동선언 기념〉전, 〈한국대표시인화가〉전, 〈정도600년 기념 국제현대미술전〉, 〈해방50주년 역사전〉 등의 단체전을 가진 바 있다.

[詩 | 畫] 신경림 시인이 갑작스레 어딜 다녀와야 할 일이 생겼으며 약속 바로 하루 전에 느긋하게 대담을 취소했을 때부터 편집부는 내내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었다. 대략적인 대담 주제를 메일로 미리 보내드렸으나, 두 사람은 만나자마자 서로 짠 듯이 '그거 제대로 안 읽어보고 왔는데'라고 하며 껄껄 웃었다. 조용한 대화를 위해 일부러 고즈넉한 전통찻집을 예약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인사동에 단골 대폿집이 있다며 다같이 거기로 가자고 했다. 이 밤이 깊어가도록 술잔을 기울여야 '진짜' 이야기가 나온다며. 얼떨결에 따라간 대폿집은 시골벽적했고, 두 사람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들락날락했다. 뒤늦게야 깨달았다. 이것이 바로 신경림 시인과 여운 화백의 예술 성향 그 자체라는 것을. 정형을 거부하고, 우리네 땅과 사람들을 소박한 시선으로 담아내는 그들의 작품은 정말이지 두 사람과 꼭 닮아 있었다. 우리 문단과 화단의 대표적인 어른이라고 해서 엄숙하거나 꼬장꼬장한 모습만을 기대했다가는 오산이다. 어떤 젊은이들보다도 호방하고, 유연하니까. 자, 이제 흠뻑 취할 시간이다. 징이 울린다. 막이 '오른다.'

여운 신 선생님하고 저랑 이렇게 대담을 하게 됐는데, 사실 하루이틀 인연이 아니라 30년 인연이잖아요. 사실 제가 할 말이 많아요. 당시에 인권위원회가 있었으면 고소해야 될 분이거든. 세상에, 내가 키가 좀 크다는 죄로 얼마나 나를 팔시하던지. (웃음)

신경림 (웃음) 키 큰 사람이 자꾸 내 옆에 오니까, 얼마나 싫어. 막 피했다녔지.

여운 말하자면 나는 신 선생님이 그저 좋아서 싫다는데도 쫓아다녔지. 사실 지금은 대담한다고 하니까 깎듯이 대하지만, 원래는 이러지



여운, <지리산 천왕봉>, 종이 위에 묵탄, 콩테, 115×145cm, 2004

않는다고. (웃음) 저는 대답이 연기된 참에 며칠 지리산에 훌쩍 다녀왔어요. 역마살이 껴서 내가 잔설이 남아 있는 지리산 몸통에 햇살이 환드는데, 이야, 얼마나 아름답던지... 지리산은 이맘때 봐야 되거든요.

신경림 대개 좋은 그림들은 시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여운 화백 그림은 시하고 통하는 게 참 많아. 시적인 분위기, 시적인 상상력, 시적인 이미지가 있으니까 참 좋지.

여운 제 그림이 시적인지, 문학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부러 문학적으로 그리려고 한 건 아니에요. 잠재된 과정 속에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것일 수는 있겠죠. 오히려 저는 신 선생님의 시를 보면서 반대로 생각을 했어요. 가령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로 시작하는 <농무>는 읽다보면 광경이 다 보여. 징 울리는 소리가 들리고, 그

현장이 시각적으로 확 펼쳐진단 말이죠. 마치 그림처럼. 말하자면 언어를 갖고 현장을 그려내는 거죠.

신경림 가만 보면 예술가 중에서도 화가와 문인은 늘 함께 생활해온 것 같아. 사실 표현방법만 다른 것이지 추구하는 건 같으니까. 한쪽은 색과 선으로, 한쪽은 언어를 통해서 한다 뿐이지. 특히 70, 80년대 군사독재 시대를 통과하면서 미술과 문학이 함께 투쟁했잖아. 독재 체제는 사람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방해하니까, 우선적으로 그 방해물을 제거하는 데 미술과 문학이 일조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좋은 그림이고 시일 수 있겠는가, 이런 의견이 통했던 말이야.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지키려고 해왔잖아.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같이 어울리게 된 것도 거기서 통하는 게 있어서였겠지.

——신경림 시인과 여운 화백은 사회 참여적인 민중예술을 해왔다는 점에서 맞닿아 있다. 두 사람의 시와 그림은 민중의 삶과 정서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또한 두 사람은 각각 자유실천문인협의회와 민족미술협회의회(민미협)의 창립멤버이며, 그밖에도 수다한 단체에서 목소리를 내며 70, 80년대 민주화 운동에 부단히 참여해왔다. 여 선생이 대뜸 자신의 그런 활동은 신 선생의 시로부터 받은 영향이라며, 신 선생의 시 한 구절을 멋들어서 읊었다. 그리고보면 여운이라는 이름이 처음 화단에 알려진 것은 민중미술가로서는 아니었다. 전위적인 플라주 작업을 펼치는 현대미술 화가로서였다.

여운 저는 선생님 시를 통해 민중의식이랄지, 역사나 현실에 대응하는 것을 배운 거나 다름없죠. 선생님의 <눈길>에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아편을 사러 밤길을 걷는다. 진눈깨비 치는 백리 산길.” 어느 날 이 구절이 내 안에서 풀어지면서 당시 상황이나 현실 같은 것이 확 전개되더라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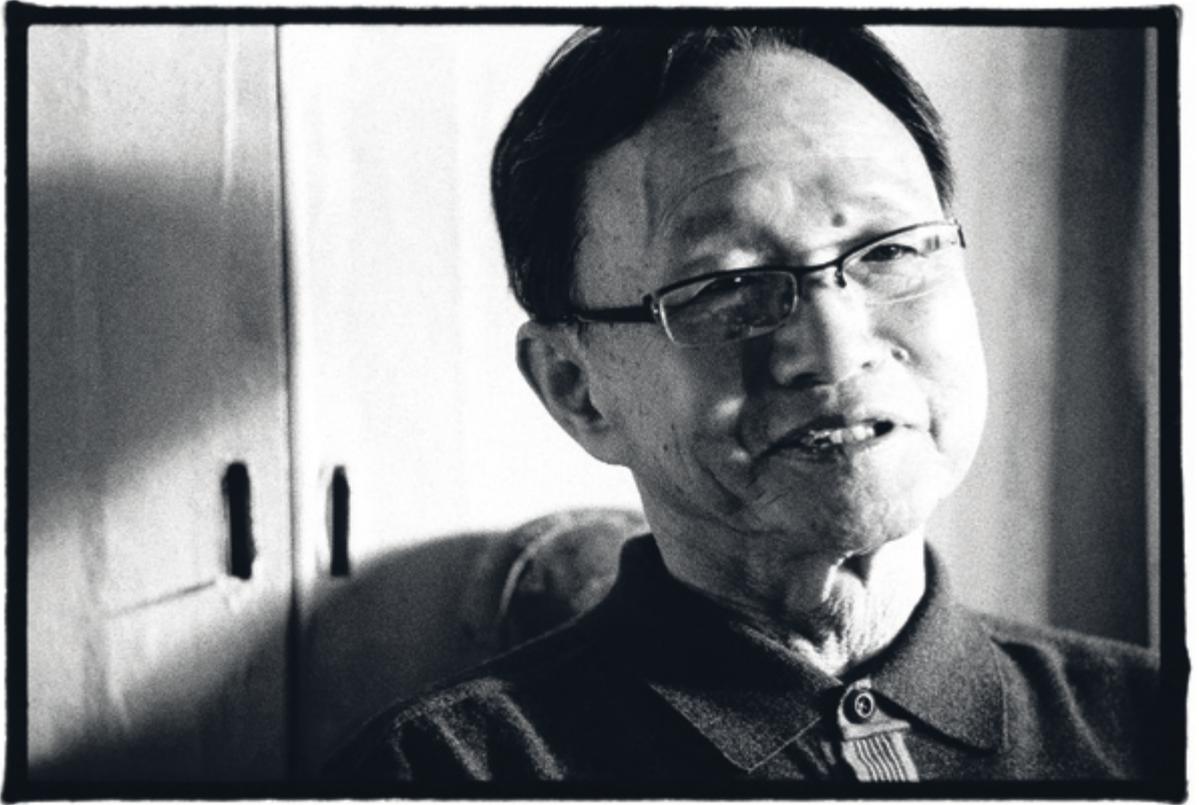
신경림 그런 소리 하지 마. 배우긴 뭘 배워.

여운 당시에 제가 받은 미술 교육이라는 건 그야말로 ‘잘’ 그리기만 하면 되지, 역사나 현실을 반영하거나 비판하는 건 용납 못했어요. 어느 해인가 한해(旱害)를 입어서 눈이 짝짝 갈라지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래, 저는 그걸 모티브로 그림을 그려서 국전에 내려고 했죠. 미술의 신춘문예에 해당하는 것이 국전이었잖습니까. 갈라진 눈에 삼을 들고서 있는 한 농부의 절규하는 심정을 그려서 심사를 받았는데, 담당교수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널 이해는

한다만, 이걸로 데뷔시킬 수는 없다. 사실 난 이데올로기나 그런 거 없이 순수하게 그 농촌 현장 자체를 그린 거였거든. 그런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방황하게 된 거죠. 이런 거 저런 거 다 안 된단니까, 애매하게 빠져든 것이 전위미술, 현대미술이었어요. 아방가르드. 거기에 한참 길들여져서, 참 해석도 치사해지고 그랬죠. 그렇다고 제가 처음부터 미술사나 그 개념을 알고 전위미술을 한 건 아니었어요. 무슨 유과에 속한 거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생적 그룹인데. 그때 남관 선생이 잠깐 홍대에서 우리를 가르치셨는데, 저보고 이리시더라고요. “너무 크게만 보지 말고, 좁게 볼 때는 좁게도 한번 보라.” 숲의 전체 형태가 아니라, 작은 한 부분에도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그때 배웠어요. 말하자면 나 나름대로의 혁명이었죠. 가령 나무니 뭐니 다 배제하고 제비꽃 중심으로만 보는 거죠. 제비꽃 중심으로 땅의 형상을 부분만 클로즈업하는 식으로 그려봤더니 남들이 초현실주의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촌놈이라, 개념도 중요시 안 했으니까 몰랐죠.

신경림 난 아방가르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그건 그 나름대로 세상에 대한 해석을 달리 하는 거니까.

여운 아방가르드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거기에 내용의 본질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죠. 옷만 그렇게 입은 경우엔 얼마 못 가서 좌절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 그래도 전위미술로 일찍이 입선도 되고, 입상도 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결국에는 허무해지더라고요. 관념적이고, 철학적인



개념 미술이 내 체질에는 안 맞는 거죠. 본질이나 내용이 애매모호해져서 허상만 남고, 정상으로 갈 수 있게 됐는데도 애정이 없어진 거예요. 이런 거 하려고 그림 한 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고, 다행히 신 선생님이랄지 주변의 저보다 앞서 있던 사람들에게 의해 다른 생각을 하게 됐죠. 요새 후배들한테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자기도 모르는 또 하나의 관념에서 빨리 해방돼라.

신경림 그래도 나는 여운 화백의 모더니즘 체험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 과정을 거쳤으니까 지금 그림이 활달하고 사물을 보는 눈도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지, 그것을 안 거쳤으면 다른 사람과 너무 비슷했을지도 몰라. 젊어서 모더니즘 거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문학도 마찬가지고, 처음부터 한 길로만 가는 건 답답하지 않을까? 방황하다가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해야지.

여운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는 괴로울 때도 많았었죠.

신경림 괴로움 같은 건 겪어야지 뭐, 할 수 없이. (웃음) 어디서 봤는데, 말년을 가장 불행하고 고민스럽게 보낸 화가가 샤갈이라고 그러데. 파리에서 그림 그리다가 러시아 모스크바로 돌아온 게 1915년인가 그때쯤이라고 그래. 1922년까지 러시아에 살면서 혁명을 거쳤지. 러시아 혁명이 일어날 때 샤갈이 굉장히 고민했다고 그래. '이러한 현실 속에서 삶의 모습을 어떻게 그려야 할까.' 그것도 이해가 되지 않아?

여운 그럼요, 이해되죠. 칸딘스키에 관해서도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칸딘스키 하면 교과서처럼 생각나는 그 형식 있잖습니까. 그런 양식에 대한 해방을 보여주는 이야기인데요. 칸딘스키가 작업하다가 뜻대로 잘 안 되니까 성질이 나서

뒹어놓고 나갔대요. 몽파르나스에서 술 먹고 다음 날 돼서야 다시 작업실로 들어갔는데, 새로운 그림이 하나 보이더라 이거야. 그게 뭐냐 했더니, 판 게 아니고 어제 그린 그림이 거꾸로 놓여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칸딘스키가 신선한 충격을 받고,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어떻게 그려져 있는냐가 아니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 말하자면 관찰력이죠.

신경림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 칸딘스키가 생각한 것과는 조금 다른 것일지도 모르지만, 그림이든지 시든지 자기 나름대로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지. 어떻게 표현해내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 여차피 그림과 시는 세상에 대한 자기 나름의 해석이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자기 나름의 무언가를 갖고 있지 못하고 특이한 시각이 없으면, 그림이고 시고 영 시원찮은 거지. 남들이 보지 못한 점을 봐야지. 신윤복이 같은 화가도 일상적인 것을 그렸는데,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인간의 묘한 심리를 인상적으로 탁 깎집어내서 그린 거잖아. 목욕하는 처녀들을 훑쳐보는 동네 아이들. (웃음)

여운 그런 모든 걸 조합시킨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려놓고 그래도 조금은 행복해 할 수 있는 그림을 나는 과연 평생 몇 점이나 그릴 수 있을까 싶어요. 그래도 나는 마지막까지 그림 그리다가 죽었으면 좋겠어. 붓 들고 죽고 싶어. (갑자기 편집부 쪽을 돌아보며) 그런데 말야. 정말 제대로 된 대담을 하려면 이 밤이 다 가도록 술 마시면서 헛소리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현장 대담을 요새는 너무 계획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딱 하고 빨리 빨리 끝내는 것 같아. 자연스럽게 이 얘기, 저 얘기 해야 진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원체 자연스러운 촌사람이라 이런 건 영 익숙하지가 않아. 얼른 인사동으로 가자고. 거기 가선 내가 쓸게. (웃음)

——신경림 선생과 여운 선생은 사회참여적인 예술을 해왔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예술주의자’를 자처한다는 면에서도 닮아 있다. 예술주의가 예술을 최고로 여기는 태도라고 본다면 언뜻 사회참여적인 예술과 모순되게 여겨질 법하지만, 두 사람에게 이 두 가지 태도는 매우 자연스럽게, 유연하게 조화되고 있었다. 마치 유연한 강인함을 지닌 갈대처럼.

신경림 70년대 박정희 유신체제 때는 정말로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제도였잖아. 또 전두환 체제가 되면서 노동문제, 통일문제가 대두됐고. 당시에는 그런 사회의 문제들을 다루지 않는 시나 소설은 절대로 참된 예술이나 문학이 될 수 없다고 여겨졌다고. 그런데 나는 이런 생각에는 또 반대했어. 아무리 그렇다 해도 현실을 다루지 않는 시도 있을 수 있는 건데 왜 그렇게 과격한 소리를 하는가. 그래서 후배들한테 비판도 많이 받고 그랬지. 그러나 시도 그렇고 그림도 그렇고, 특정 목적 하에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 물론 좋은 의도로 쓰이면 좋은 일이지만, 통일을 위해서만 혹은 민중을 위해서만, 노동자를 위해서만 만들어진 시나 그림은 진정한 의미에서 좋은 시나 소설이라고 할 수 없겠지.

여운 공감합니다. 저도 민미협 회장직 임기를 마칠 때 이런 얘기 했어요. “엄숙함도 중요하지만 민족, 민중이 또 하나의 관념이 되어 우리를 가뭇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객관성을 잃어버리게 되죠. 예술이란 자유로워야 하는데 말이죠.

신경림 그렇지. 예술은 사람을 자유롭게 해방시켜줘야 하는 건데, 특정 목적을 위한 시나 그림은 사람을 속박하려고 들어. 80년대 많은 민중시들을 지금 읽어보면 덜 성숙한 시들이 많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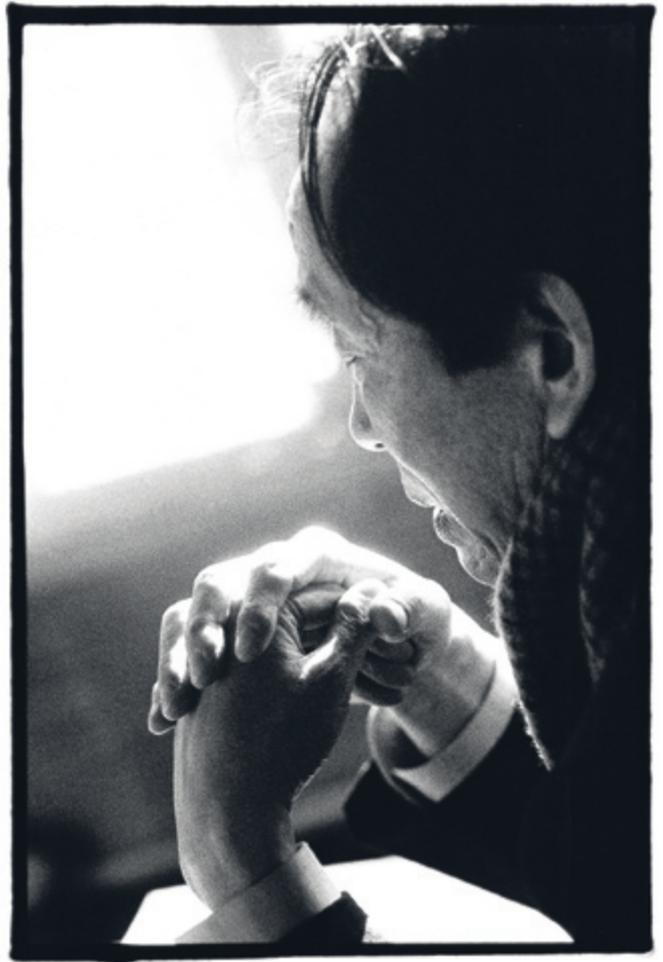
여운 여과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즉석에서 바로 뱉어냈던 시가 많았죠. 물론 그렇다고 역사와 현실을 등한시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군사독재 때는 그런 예술도 필요하죠. 하지만 그것이 예술의 전부가 아닌 것은 분명하죠.

신경림 역시 시는 최고의 시를 지향했을 때 좋은 시가 되는 것이지, 무슨 목적을 위해서 하면 좋게 되지가 않아. 극단적인 경우가 지금의 북한이야. 북한에 ‘만수대 창작사’라는 곳이 있어. 북한에서 가장 뛰어난 화가들이 모여서 그림을 그린다는 곳인데, 가이드라인이 있어. 그림의 중심에는 위대한 김일성 수령이 배치되어야 하고, 모든 인물들은 김일성 수령을 우러러보는 자세로 배경으로만 존재해야 한다, 뭐 이런 것들. 이게 주체미술의 문제점이지. 모든 것은 독립적으로 존재가치가 있는 건데, 특정 목적을 위해서만 존재하게 되니까. 주체미술도 그 나름대로의 뜻이 있었고 처음부터 나쁜 의도로 시작된 건 아니었을 거야. 근데 함몰되다 보니까 자기 나름의 해석, 안목이라곤 전혀 없는 그림, 시가 된 것이지.

남을 위해서 존재하는 시, 그림은 있을 수 없고, 그래서 안 되는 것인데. 북한 예술가들을 만나보면 그래서 답답해.

여운 종교화, 신격화 과정을 겪으며 그렇게 됐죠. 저도 평양에 가봤습니다만, <춘향전>을 공연하는데 괴롭더라고요. 미술세트 효과는 전문적으로 참 잘 했어요. 배워야 되겠더라고요. 배울 건 배워야지. 그런데 원래 우리한테 육자배기가 있고, 맛깔스러운 판소리가 있고, 우리 가락이 있는 건데, <춘향전>을 오페라로 해서 소프라노, 바리톤으로 괴성 지르고, 맨 교조주의적으로 가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귀도 아프고 피곤한 거야. 그래서 내가 2부는 안 들었어. 공연 끝나고 밤늦게 만찬을 먹는데 그쪽에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봐. “노래도 잘하고 뛰어난데, 정서적으로는 안 맞았습니다.” 이렇게 답했더니 계속 집요하게 물어보잖아요. 결국 나중에 술 마시다가 그 사람들 틈에 걸려서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여보쇼 그건 서양인들 문화지, 우리 문화가 아니여!” (웃음) 그랬더니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야.

신경림 가령 순수한 뜻에서 보면, 예수를 그린 그림도 예수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지, 예수 그 자체가 목적일 순 없지 않아? 실제로 많은 그림을 보면 예수 얼굴이 화가의 얼굴을 닮는단 말이야. 시도 마찬가지지. 어떤 종교를 찬양해도 자기 자신에 대한 찬양, 비판, 탐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거지. 결국 시나 그림이나 똑같이 중요한 건 자기 자신에 대한 탐구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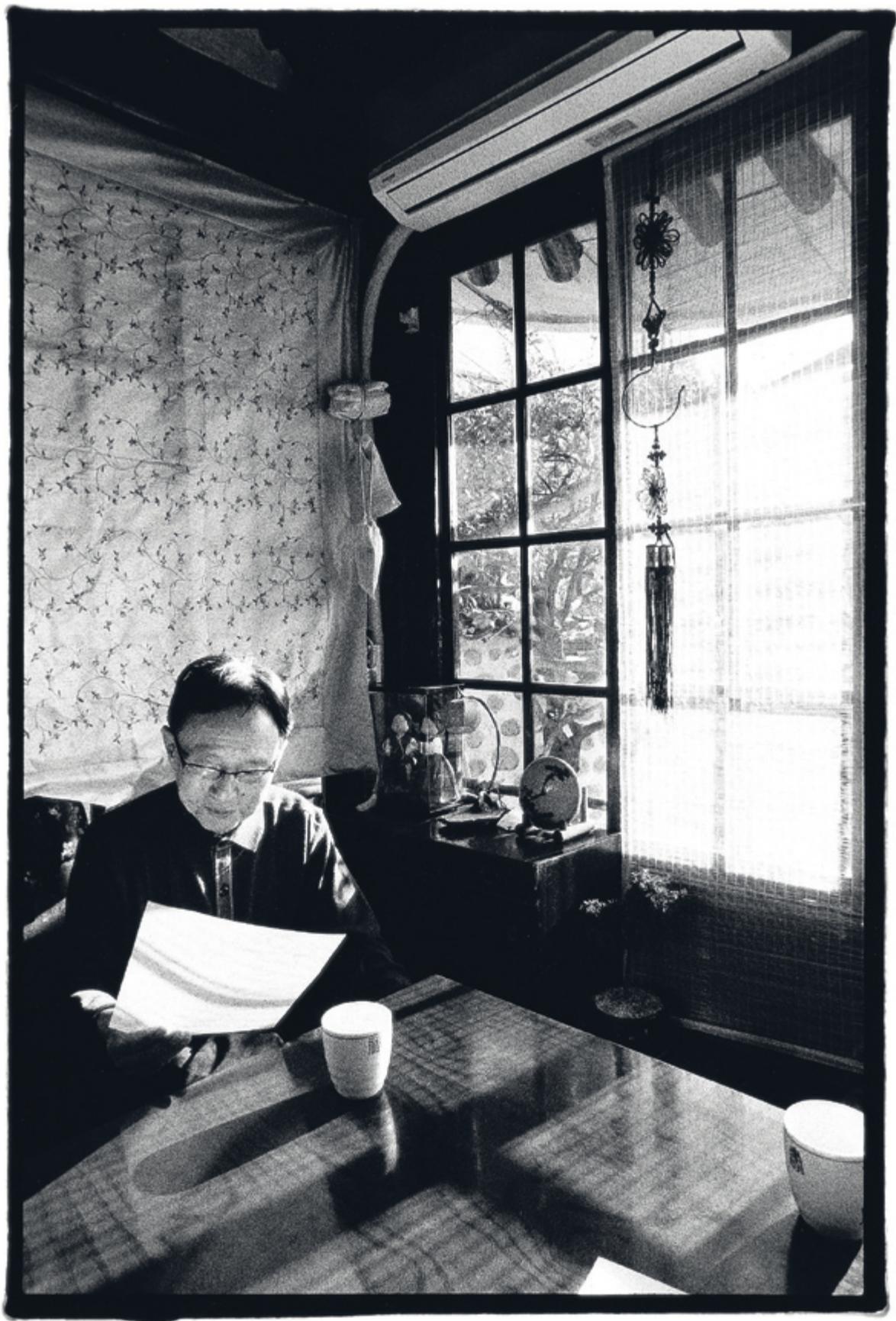


여운 그렇죠. 자기가 얼마나 생각했는지 그 정신이 그대로 배어 나오는 거죠.

신경림 그런데 그림과 시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하나 있지. 그림은 만국 공통의 언어인 반면, 시는 사투리거든. 외국 사람은 암만 봐도 모르는 거야. 번역이 된다고 해도 잘 모르고, 그림은 국제적으로 금방 유명해질 수 있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시지. 시는 어떤 면에서 방언이고, 그림은 방언이 없는 언어지. 요즘 영어 몰입교육 이야기가 한참 나오잖아. 그건 곧 시는 죽어도 된다는 이야기야. 일본에서 19세기 말에 영어공용화 이야기 나왔는데 문교부 장관이 암살 당했어. 시끌시끌 떠들다가 그냥 끝나버렸지. 비영어권 작가 중에 영어로 소설 써서 성공한 사람은 조셉

콘라드라는 폴란드 작가 딱 한 명이야. 그 외에는 다 모국어로 쓴 것을 번역한 거지. 이걸 여담인데, 인도 작가 타고르의 시는 예이츠가 번역했는데, 사실 타고르 시는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다는 말도 있어. 예이츠가 자기 풍으로 번역해서 더 근사하게 만들어줘서 노벨상까지 받았다고 말하기도 하거든. (웃음) 어쨌든 언어에 민족혼이 담겨 있다는 유치한 소리 할 것도 없이, 영어공용화하면 한국 문학은 죽어. 정말 문학의 위기야. 물론 영어 잘하면 좋지. 좋지만 시골 노인네, 예술가들까지 다 잘할 필요 없는 거야. 영어 잘 가르치려다가 우리나라 사람 99%가 문맹이 될 수도 있는데, 왜 그걸 모르나 몰라.

여운 특히 문학 중에서도 시는 더 그렇겠죠.



시는 언어의 핵심인데, 그 어휘랄지 정수를 어떻게 영어로 표현합니까.

신경림 소설보다도 시가 훨씬 문제지.

어머니로부터 배운 말을 가장 잘 활용하는 자가 가장 좋은 시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시라는 건 진짜로 어렸을 때부터 배운 말을 사용하는 거야. 커서 배운 말로 시 쓰는 사람은 없어. 가령 정지용 시에는 바다가 안 나오거든. 내 시에도 바다가 없어. 어릴 때 바다를 보고 자라지 않았으니까. 언젠가는 염무웅이하고 제주도에 놀러갔는데, 계속 바닷가에 가지는 거야. 똑같은 바다데 뭘 또 나가봐 이랬더니, 에이 이 양반은 바다도 몰라, 이러더라고. 문학이란 게 그래.

여운 하나는 알고 열을 모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천민자본주의 식으로 만들지 말고,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국제화, 세계화 시키느냐를 고민해야 하고, 문화적 마인드를 가진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신경림 사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선진국 언어를 따라 쓰자는 말이 많았어. 실학자 박제가도 우리말 없애고 한어 쓰자고 그랬고, ‘우리는 한자 써야 한다. 그래야 빨리 중국을 따라갈 수 있다. 쓸데없이 왜 우리말을 쓰느냐.’ 상당히 위협한 발상이 옛날부터 있었던 거지. 그때 우리가 한어 썼다고 생각해봐. 조선민족은 없어졌어. 실학자들은 다 민족주의자인 줄 아는데 아니야. 다산은 아무 의견을 안 냈지만, 연암도 거의 지지했을 것 같아. 시는 이렇지만, 그림의 경우엔 이런 문제는 전혀 없잖아.

여운 그림은 국력과 관계가 크죠. 요즘

리히텐슈타인의 <행복한 눈물>로 말들이 많은데, 팝아트는 미국의 짧은 역사 속에 문화 허기증을 빨리 채우기 위해 만들어낸 거라고 봐요. 또 사람들도 그렇게 길들여져서 정말 더 그럴싸하게 보이는 거고, 가령 중국에서 옛날에 민중미술 그랬던 비제도권 화가들이 최근에 팝아트 계열로 바뀌면서 뜨고 있거든요. 중국의 전통이 완전히 거품처럼 무너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유대인들의 장난이예요. 우리까지 거기 놀아나선 안 돼.

신경림 문화 상품은 다른나라와 차별될 때 장사도 될 수 있을 거야. 외국 그림하고 똑같으면 우리나라 그림을 뭐 하러 보겠어. 안 그래?

여운 가령 박수근 선생 그림 보면 그렇거든요. 그분은 가난하게 홀로 살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김환기 선생이랄지 그외의 사람들은 일본 유학도 가고 유행도 잘 알고 그랬지만, 박수근 선생은 초등학교만 졸업했고, 학벌이 없죠. 하지만 오히려 그만치 더 진실하죠.

신경림 박수근이 빛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한국 정신이 있어서 그런 거겠지.

여운 신 선생님 얼마 전 이집트에 다녀오셨죠. 거긴 어땠나요? 사실 피카소나 마티스나 이런 화가들은 이집트 피라미드나 문양에 영향을 받은 거잖아요.

신경림 그렇지? 맞아. 나도 이집트 가서 마티스가 이집트 그림 흉내냈구나, 하는 느낌을 딱 받았어. 내가 잘 본 거네. 이집트 고대문명이 정말 굉장하더라고. 대단해. 상형문자가 너무 아름다워서 인간이 만든 것 같지가 않더라고.

이래서 공상과학이 나오는 거 아닌가 싶어.
공상과학에서는 그런 고대문명이 인간이 아니라
우주인이 만들어놓은 거라고 주장하잖아.
신비로운 게 너무 많아.

여운 많은 서양화가들이 이집트를 흉내냈죠.
아프리카 미술에도 영향 받았고, 사실 따지고
들어가면 문자를 만든 건 화가야. 노상 문자
사용하며 사는 작가들은 화가한테 고마워해야 돼.
(웃음)

신경림 그래 맞다. 이집트 가보니까 진짜 문자는
화가가 만들었네. 가만 있어봐. 일본 풍속화
우끼요에를 모작도 해보고 그런 건 누구였지?
고흐였지? 고갱인가?

여운 고흐죠. 고흐 동생 테오가 있잖아요.
테오가 여러 가지 아시아에 대한 자료를 쫓았죠.
지금도 암스테르담의 고흐 뮤지엄에 가보면
일본풍의 그림들이 많아요. 그리고 보면 우리는
세계로 여행할 수 있는 기회가 최근에는 온
거잖아요. 서양사람들은 옛날부터 여행을 다닐 줄
알았다 이거지. 우리는 그만큼 단절돼버린 거고,
여행을 통해 자기를 새롭게 여과시킬 수 있는
건데.

신경림 그래. 여행 체험이 정말 중요하지. 우리는
즐근 출국정지여서 YS 정권 될 때까지 외국에 한
번도 못 나갔잖아. 뭇 땀시 그랬는지 모르지만.
김영삼 정부 되니까 그제야 여권을 내주더라고.
얼마나 우스운 세상이었던 거야. 그 이후로 나는
1년에 대어섯 번은 여행 가. 방랑벽이 있어서. 근
10년 동안 70~80번은 갔나보다. 이번에 이집트
가서는 이런 생각을 했어. 이집트가 발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민주주의를
못해서야. 세계에서 대한민국처럼 빠르게
민주화된 나라가 없잖아. 그거 누구 덕이야.
민주주의는 싸워서 얻는 거지, 거저 받는 게
아니잖아. 그동안 민주화 운동하면서 잡혀가고
고생한 사람들을 정말 인정해줘야 되는 거야.
그런데 김대중, 노무현 정권 거치는 동안 그런
사람들이 희화화되고, 공로를 너무 인정 못 받고
있어.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한 일은 더
높이 평가해줘야 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도
민주화에 상당한 역할을 한 것이고.
요새 노무현 대통령은 너무 과하게 욕먹는 것
같아. 그 사람이 말을 좀 함부로 하기는 하지만,
한 일이 더 많은 사람인데. 가령 노무현 정부
아니었으면 삼성 문제 같은 게 알려지거나 했겠어?
공직사회가 얼마나 맑아졌는데. 옛날하고 달라.
권위주의도 청산되고, 심지어는 요새 청와대 앞에
가서 “대통령 나와, 개새끼야!” 이래도 경찰이
와서 “아저씨, 집에 가세요.” 이러지. 옛날 같으면
잡아가서 벌써 반은 죽여버렸다고. 옛날에 이런
일도 있었어. 내가 국세청 잡지 만드는 일에
관여했는데, 책을 다 찍고 나중에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박정희 ‘대령’으로 찍힌 거야. ‘통’자가
빠져서. 그래, 국세청장한테 전화했지. 벌벌
떨면서 당장 쫓아왔어. 한 부도 밖으로 새나가면
안 된다면서, 부수 정확히 세서 몽땅 소각하라고
하더라고. 찢어서 버려도 안 된다. 3천부를
‘통’이라는 글자 하나 때문에 다 소각해버렸어.
그런 시절이었어.

여운 내가 호남 사람이잖아요. 이런 게



있었어요. 노태우 정권까지도 선거철만 되면 'DJ는 빨갱이'라는 책자가 나와서 쪽 돌아요. 나는 그러려니 하지만, 대학교수라는 사람들까지도 거기에 동조하고 길들여지더라고요. 문민정부 들어오면서 겨우 숨이 좀 쉬어졌죠.

신경림 나는 과격한 사람보다는 중도적인 사람들이 그 시대의 중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야 나라가 편해지지. 말하자면 '대한민국 역사는 죄다 잘못된 역사다. 다 고쳐라' 하는 것도 잘못이고, '통일하자는 사람들은 다 빨갱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다 고약한 놈들이야. 극단적인 사람들은 빠지고, 생각이 다른 사람도 포용할 수 있는 온건한 사람들이 주류여야지. 조선시대에도 영조는 양쪽 과격한 사람들을 다 들여다 썼어. 그러니까 맨날 조정에서 당쟁이 벌어지는 거야. 그걸 보고 자란 정조는 과격한 사람은 다 배제하고, 중도적인 사람만 기용하는 탕평책을 썼어. 그런 역사가 있다고. 그러면 나라가 편해지거든. 지금도 똑하면 신문에서 대판 싸우고 있잖아. 예컨대 문학에서 보면, 서정주 시인에 대해서도 그래. 그 사람 친일한 건 정말 잘못했지. 그런데 친일했다고 우리 문학사에서 아예 빼버리는 건, 우리 민족 문화가 가난해지는 일이야. 뭐하러 그래.

여운 서정주 시가 탁월한 건 맞죠. 탁월하게 아름다운 언어를 구사했지.

신경림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 시를 좋아하지는 않아. 나하고 생리적으로, 정서적으로는 안 맞는 시야. 하지만 굉장히 좋은 시이기는 해. 호남, 남도 말을 맛깔스럽게 구사한 사람으로는 최고지. 북도

말을 제일 잘한 사람은 백석이고, 경상도 말을 제일 잘한 사람은 박목월이고. 그런 건 귀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지.

여운 비판할 것은 비판하되,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커가는 거죠. 우리 신 선생님은 그런 면에서 정말 건강한 보수죠.

신경림 그럼. 나는 스스로를 중도 우파라고 생각한다고.

여운 보통 우리를 두고 좌 쪽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만들어낸 거야. 나도 건강한 보수가 되고 싶어요.

신경림 민노당 중복파는 또 '신경림은 보수반동'이라고 그러지.

여운 신 선생님하고 나하고는 가는 길은 대충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저한테 신 선생님은 우리 시대의 마지막 풋대 같은 존재인데, 가령 선생님이 자주 하는 "똥슈"라는 말을 보면, 거기에 선생님의 성품이 다 들어 있잖아. 이 말을 진짜 '똥다'는 걸로 들으면 오산이지. 타협하는 것 같으면서도 타협하지 않는 것. 너그러움도 있지만, 단호할 땐 정말 단호하고 냉철해. 이백과 두보 중에 신 선생님은 두보에 가깝다고 할까.

신경림 하여튼 자기 생각만 고집하고 다른 사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 시대의 중심이 되면 시끄러워지는 거야. 예술도 그런 사람한테는 좋은 것이 안 나와. 예술이라는 것은 물론 자기 고집이 세야지. 하지만 나랑 다른 고집도 인정해줄 때 그 고집이 빛나는 거야.

여운 마찬가지로 대중의 사랑을 받든 안 받든 하여튼 열심히 한 작품은 존중하고 싶어요. 내

취향이 아니라고 해서 무조건 깎아내리거나
그러면 안 되죠.

신경림 이런 시도 필요하고, 저런 시도 필요하지.
민주화가 그래서 중요한 거지. 요새 젊은
예술가들은 어떻게 민주화됐는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런 걸 자꾸 말해야 돼.

——북한의 주체미술부터 모국어와 영어 몰입
교육, 한국예술의 정체성, 노무현 정부와 민주주의
까지, 두 사람의 화두는 여러 분야를 중횡무진 넘
나들었다. 하지만 대화의 종착지는 늘 예술을 향
해 있었다. 두 사람은 예술을 위해서라도 ‘민주주
의’가 정말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신경림 사실 70, 80년대의 그림이나 시가 한국에서
아주 빛나는 시기였잖아. 르네상스기 비슷하게.
암울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치열한
시와 그림이 나오고, 좋은 게 나오고 했지.
요즘은 세상이 너무 살기 편해져서, 좀 느슨해진
면은 있지. 하지만 아무래도 훨씬 좋아졌어.
자유롭고 풍요로워지고. 다만, 요즘 문학은
너무 신자유주의에 빠져서 돈하고만 관련되어
있고, 쉽게쉽게 편하게 쓰려고 하는 게 있어.
너무 자잘한 소재, 소소한 일상만 담으려고 하고.
소설은 잘 모르겠는데, 시는 지나치게 일본이 갖고
있는 나쁜 점을 배워가려고 그래. 일본을 이미
다 극복했다고 생각하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일본에 많이 함몰되어 있는 것 같아. 또 시도
그림도 일종의 소통인데, 관람자가 있어야 하고
독자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소통이

전혀 도외시되는 것은 문제인 것 같아. 남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하는 걸 자꾸 써대는 건 좀 문제지. 미술은 어떤가?

여운 미술도 마찬가지죠. 나는 요새 젊은
예술가들에게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관념적인
이야기는 하지 말아라. 호기심을 갖고 철저하게
현장으로 뛰어라. 현장에서 터득된 상식을
이야기해라. 그런 노력들을 묵혀서 발효되는
사람이 되어라. 이런 이야기들. 그래도 저는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옛날에는
자기로부터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어찌됐든
가질 수밖에 없었잖아요. 압박이 있으니까. 항거를
통해 진정한 삶을 생각하고, 지금은 현실에 대한
압박이 없으니까 다들 게을리지죠. 그럴 수밖에
없지.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창작의 자유,
풍요로움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민주화다 이거죠. 이제 젊은 예술가들이 해방된
리얼리티를 적당히 가질 수 있어야 해요.

신경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시는 결국 남이
못 보는 걸 봐야 되는 거야. 유행가하고 시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그런 거야. 내가 어디 문학
강연을 하러 갔는데, 나랑 나이 비슷한 영감이
제일 앞에서 노트를 하면서 듣는 거야. 신경이
쓰이데. 뒷풀이 갔는데 술 먹으면서 말하는 것도
다 노트를 해. 계속 신경 쓰고 있었지. 그러다
노래방까지 갔는데, 이 사람이 또 따라왔어.
거, 죽겠데. 내가 <무정 부르스>라는 노래를
부르니까 슬그머니 옆으로 오더니 “선생님, 그거
제가 작사한 겁니다.” 이래. (웃음) 노래 한 곡 더
하래. 그래서 <모닥불>을 불렀어. 그 사람이 또





와. “그것도 제가 작사한 겁니다.” (웃음) 보니까 작사가 박건호 씨였던 거야. 그 사람이 썼다 하면 전부 히트야. 한 500편? 내가 뭐 하러 문학 강연을 들으러 왔냐고 물었더니, 원래 순수시를 쓰고 싶었는데 암만 해도 안 써져서 왔다는 거야. 히트곡은 그렇게 잘 쓰면서. 둘이 대중가요와 시의 차이점이 뭘까 이야기하다가 낸 결론이 이거야. 대중가요는 다 아는 얘기를 쉽게 푸는 거고, 시는 남이 보지 못한 부분을 찾아내서 얘기하는 거다. 그렇게 결론을 냈지. 사실 시에 곡을 붙인 노래도 있지만, 히트한 건 거의 없어. 황동규의 <즐거운 편지>는 영화에 나왔기 때문에 알려진 거고, 고은의 <가을 편지>도 어디 소개돼서 그렇고. 노래와 시는 결국엔 다른 거야.

여운 시대 유행을 너무 따라가면 자아하고 떨어져 버리죠. 현대병 걸리는 거죠. 월당 선생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자네가 현대에 살고 있으니까 자네 생각대로 그리면 그 그림이 바로 현대다. 예술이라는 것은 재능도 필요하지만, 결국에 나머지 밀도라는 건 가슴으로부터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고, 무엇을 선택했는지. 그런 것이 작품에 진솔하게 나오는 거야. 모든 창조적 작품에는 자기 세계관이 들어 있잖아. 출세를 위해 부화뇌동하거나 하면 안 되지. 그래도 선생님이나 나는 그러진 않았잖아.

신경림 출세하려고 노력한다고 출세가 되나? 어차피 안 되니까 포기하고 가는 거지. (웃음)

여운 천성이 그렇죠 뭐. 밤길을 걷는 사람이니까.

신경림 출세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애초부터 포기하는 사람들이 예술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예술하는 사람들은 ‘건달’들이야. 주류가 못 되는 사람. 주류 되면 벌써 예술은 끝이야. 여운이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린 건달이고, ‘포라이’지. 이 인간하고는 만날 술 마시며 이야기해서, 술 안 먹으면 얘기가 안 돼.

여운 진정한 건달로 가려면 나처럼 가야 돼. 신 선생님은 나에 비하면 선비과지. (웃음)

——밤이 깊어지고, 주홍이 무르익자,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애정을 여과 없이 내비쳤다. 그 흥겨움 속에서 시는 어느새 그림이 되고, 그림은 시가 되었다. 두 사람의 근황이 쏟아진 것은 자리가 파할 때쯤이었다. 5년 넘게 신작 시집 소식이 없던 신경림 시인에게도, 지금까지 다섯 차례밖에 열지 않았을 정도로 개인전을 고집스럽게 아껴왔던 여운 화백에게도 반가운 새 소식이 있었다. 여 선생이 신 선생에게 뜻밖의 호기로운 선물을 약속한 것은 그



반가움 때문이었을까, 취흥 때문이었을까?

여운 이놈의 그리움 때문에. 나는 만날 신 선생님을 그리워해.

신경림 내가 이 인간한테 감동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참 인간적이야. 만날 남 생각만 하고, 바보 같이 말이야.

여운 참, 신 선생님한테도 아직 말씀 안 드렸는데, 이번 4월 말에 스위스 제네바 아트페어에서 전시를 하나 하게 됐습니다.

신경림 이야, 신나네. 드디어 개인전 하는 거야? 딴 사람들은 허구헌날 전시 하는데, 여운이는 그러질 않지.

여운 사실 그래서 며칠 전에 지리산도 다녀온 거예요. 확인하러. 지금의 지리산은 벗은 몸을

보여줘요. 지리산의 원초적 에너지를. 지리산은 폰수야, 폰수. 이런 건 지금이 아니면 쉽게 볼 수 없거든요. 그 앞에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야.

신경림 그 말이 맞다. 지리산은 폰수지. 아, 그 제목으로 내가 시를 하나 써야겠다. 나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 지리산은 폰수고, 또 요물이지. 나도 글피에 시집이 새로 나와. 제목은 <낙타>. 전집 내고는 6년 만에 처음이지.

여운 축하드립니다. 그나저나 선생님 시 중에 <시골 큰집> 있잖아요.

신경림 어, 그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시들 중의 하나야.

여운 그래요? 잘 됐네. 그 시를 제가 그림으로 그렸는데... 누가 사겠다고 했는데도 신 선생님 드리려고 안 팔고 놔뒀어. 정말이야.

신경림 와, 그건 내가 사야겠다. 천만 원이면 되냐? (웃음)

여운 술이나 한잔 진하게 사세요.

우리는 '정겨움'이 얼룩진 얼굴로
 '인사동' 소줏집에 몰려 술을 마신다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한 다리를 들고 날나리를 불거나
 고갯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거나

2008년 2월 15일 금요일 4시부터 자정까지 성북동과 인사동 곳곳에서
 정리 이혜정 편집부 | 사진 박정훈